

■ 연구원 소식

○ 문화교양강좌 『사진으로 역사읽기』 2차 강좌(6월 10일)

6월 3일 시작된 <사진으로 역사읽기> 교양강좌가 지난주에 20여명의 시민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책이 된 사진 이야기>를 주제로 다시 찾아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일시: 6월 10일(월) 19시~20시 30분

장소: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주제: 루인스 하인의 “어린이 노동자” - 사진이 정책이 된 어린이 노동방지법

강사: 장근범(사진아카이브 8 대표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운영위원)



<사진으로 역사읽기> 6월 3일 1차 강좌

○ 2차 역사문학기행 신청 안내(신청기간~6월 12일)

2019년 모두 4회에 걸쳐 예정된 역사문학기행의 첫 번째 답사가 지난 5월 11일 열렸습니다. 6월 15일에는 2차 역사문학기행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이번 역사문학기행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비극적인 민족의 현실을 역사 속에서 낙관했던 서정적 민중시인신동엽(1930~1969)의 서거 50주기를 맞이해 준비되었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생가와 문학관을 방문해 작품과 역사적 사건을 학습하고 부여와 논산 일대의 문화재를 찾아 갈 예정입니다.

1. 일 시: 2019년 6월 15일(토) 09시~18시
2. 장 소: 충남 부여 및 논산시 일원
3. 내 용: 서정적 현대 민중시인 신동엽과 백제를 만나는 기행
4. 주방문지: 신동엽 문학관, 궁남지, 국립부여박물관, 개태사, 돈암서원 등
5. 참 가 비: 20세 이상 1만원

6.세부일정

일 정	내 용	비고
09:00~09:30	연구원에 모이기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주차장
09:30~11:30	신동엽 문학관 이동 및 답사	부여군 부여읍 신동엽길 12
11:30~12:30	국립부여박물관 이동 및 관람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12:30~13:30	점심식사	부여군 부여읍 북포로 101-1
13:30~14:30	궁남지 이동 및 답사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 52
14:30~17:00	개태사 및 돈암서원 답사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11
17:00~18:00	전주대학교 이동	
18:00~	소감나누기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6월 12일까지 참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시는 분에게는 탐방지역 소개 글과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20세기 마지막 전위 예술 (1998년 6월 16일)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에서 정봉식과 한성실 사이의 8남매 가운데 장손으로 태어난 정주영은 1932년 아버지가 소를 팔았던 돈 70원을 갖고 가출했다. 그의 나이 18세 때였다.

1998년 6월 16일 84세가 된 정주영은 “20세기 마지막 전위예술”이라는 평을 들으며 소 500마리를 끌고 판문점을 넘었다. 한국 보수의 핵심인 재벌이 남북관계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를 찾기 어렵다. 정주영은 ‘소떼 방북’ 이전에도 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구상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당시 한국 사회 재벌의 경영 방침에 비춰 볼 때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일본 기업인 등을 통해 대북 접촉을 시도,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으로부터 두 번이나 초청장을 받았지만 정부의 불가방침으로 방북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1989년 1월, 한국 재벌 총수 가운데 최초로 소련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이때부터 구체화된 그의 공산권 경제협력 행보는 곧이어 ‘공개방북’으로 이어진다. 남북고위급 첫 예비회담이 열리기 보름 전이었다.

9박 10일간 북한을 방문한 그는 평양, 원산, 진남포 등의 화학공장과 시멘트 공장을 시찰하고 금강산과 고향 통천 일대를 헬기로 답사했다. 그리고 북한 측과 ‘금강산 관광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개발과 원동지구 공동진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 여기서 그는 미군이 없는 설악산과 금강산 사이의 군사분계선을 관광객의 통로로 하자는 파격적 제안을 했고 훗날 이 제안대로 육로 관광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가 귀국하고 얼마 후 청와대 관계자는 “적성국가와의 외교과정에서 불법성을 노출”했다고 비난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 출신 국회 부의장 김재광 역시 “북과 합의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에 이은 북한의 체제 수호적 폐쇄정책과 평화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정당과 손을 잡은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만든 민자당의 반대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결국 정주영 스스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참패를 당하고 그 사이 김일성이 사망했다.

정주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방북을 시도했다. 해방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현대 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며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판문점을 통과하는 육로를 이용해 방북하겠다는 정주영의 고집으로 쉽사리 방북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이미 충남 서산 농장에서 키우고 있던 소를 이용한 소떼 방북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로방북이 아닐 경우 북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결국 그의 뜻이 승리했다. 1998년 6월 16일부터 7박 8일 방북기간동안 정주영과 수행단은 북한 측과 금강산관광개발 및 자동차 조립공장, 20만톤 규모의 고선박 해체설비, 제3국 건설대상에 대한 공동진출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전두환 정권 시기부터 정주영이 주창했던 남북경제협력 구상이 실행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6월 23일 돌아온 그는 “가을부터 매일 1천 명 이상씩 금강산 여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후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정이 그물에 걸리고 8월 31일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자 정국의 급격히 경색되었다. 당초 9월 25일 첫 배를 띄우기로 했던 금강산행도 무산되었다.

정주영은 잇단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10월 27일 501마리의 소와 함께 다시 판문점을 넘었다. 김정일과 만날 수 없으면 “소를 몰고 다시 내려 가겠다”고 버틴 끝에 10월 30일 밤 김정일과 만남이 이뤄졌다. 그는 이 회담에서 금강산 일대 독점개발권과 사업권을 보장받았고 마침내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여객선이 출항하게 되었다.

20세기 마지막 전위예술이라 불렸던 정주영의 소떼 방북은 이후 국내외적인 장애물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라는 결과를 생산했지만 21년이 지난 오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경제협력은 모두 중단된 채 현장은 두꺼운 먼지가 인기척을 대신하고 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천진불이 노니는 설악산 오세암, 다섯 번째 이야기 - 천진불이 펼치는 별세계

유영봉(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천진관음보전과 시무외전 사이로 난 계단을 따라 오르면, 위쪽의 '동자전童子殿'과 맞닥뜨린다. 전설의 주인공인 오세동자 곧 천진불天眞佛을 모신 전각이다. 최근에 지어졌다. 동자전이 완공된 날의 일이다. 동자전의 낙성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선남선녀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날 밤 대략 100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이적異蹟을 겪었다고 한다. 백의관음보살께서 오세동자를 품에 안고 경내의 이곳저곳에 한참 동안 출현하셨다는 것이다. 나타나신 관음보살의 형상은 그때그때 달랐지만, 관음보살을 친견한 사람들은 경복敬服을 금할 수가 없었고, 저마다 겪은 신비한 경험에 더욱 신심을 북돋게 되었다고 한다. 서송西松스님이 들려준 이야기다.

법당 안에 좌우의 나한을 거느린 오세동자가 제법 점잖게 앉아있다. 주변에는 생기발랄한 표정을 지은 귀여운 아이들이 그득하다. 뒷면의 탕화 역시 아이들로 빼곡하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세상이니, 동화 나라가 따로 없다. 누군들 이곳에 와서 맑고 깨끗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랴. 오세암은 단연코 천진불이 펼치는 별세계이자, 낙원이다. 청정무구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눈길이 순박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동자전의 오른쪽으로 공양간이 붙어 있는 건물은 바로 오세동자가 성불했다고 전하는 관음전이다. 현판은 오세암이라고 붙었다. 관음전 맞은편이 종무소이고, 관음전과 종무소를 'ㄷ'자로 잇는 건물이 연화동이다. 관음전과 연화동은 보현동이나 문수동처럼 이제는 기도 참배객들을 위한 숙소로 쓰인다. 관음전은 새로 지어진 천진관음보전과 동자전 그리고 시무외전에 조금은 치인 느낌이다. 그렇지만 관록이 깃든 모습은 여전하다. 게다가 전설의 오세암 자리를 차지한 건물이 아니던가?

한겨울 이곳에 들면, 그 옛날의 암자다운 한적한 맛을 얼마간 엿볼 수 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봄부터 가을까지를 피해, 한겨울 눈덮인 이곳을 찾아볼 일이다. 그리하여 눈 속에 갇힌 고립무원의 단절 속에서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었던 동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오세암의 진가를 맛볼 수 있다.

동자전의 좌측으로 난 계단을 따라 오르면, 통나무로 지은 아담한 선방이 나타난다. 그 길 끝에 삼성각이 숨었다. 삼성각은 경내의 모퉁이에 한적하게 자리를 열었다. 뒤란에는 다람쥐 몇 마리가 공양에 의지해 살고 있다.

삼성각은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한여름의 별빛이 다소 느긋하고 정답다면, 겨울날의 별빛은 한층 매섭고 총총하다. 주변에 도시가 없어서 더욱 어두운 이 산골짜에서만 볼 수 있는 총총한 별빛이다. 108배를 드리느라 뺏뺏해진 다리를 쉬답시고 어정거리며 밤하늘을 우러러보다가, 광대무변의 우주 속에 깨알만도 못한 자신이 한 마리 미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곳이 바로 삼성각이다. 어찌하여 겸손함은 늘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가와 뒷덜미를 후려치는가?



동자전 천진무구한 도심의 세계를 펼쳐놓은 곳이다

풍수지리로 따져 보면, 오세암은 '연화반개蓮花半開'의 명당이다. 일일이 따질 것도 없이, 마당 한가운데에 서면 이곳이 왜 천하의 명당인지 스스로 깨우쳐진다. 동자전 뒤에 관음봉이, 관음전 뒤에 나한봉이, 삼성각 뒤에 칠성병풍암이, 천진관음보전 오른쪽 앞으로 만경대가, 시무외전 앞으로 사자바위봉이 한 폭의 그림처럼 오세암을 감싼다. 따로따로 보아도 그지없이 아름다운 봉우리들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한 송이 연꽃으로 곱게 피어난다.



삼성각 오세암의 제일 후미진 자리에서 자신을 한껏 낮춘 삼성각

연화반개의 형상은 만경대나 사자바위 위에서 바라볼 때 더욱 실감 나는데, 연꽃 한가운데 곧 꽃술 자리에 오세암이 들어선 형국이다. 더욱이 한겨울 순백의 세상에 피어나는 오세암의 고결한 모습은 감동 그 자체다. 풍수지리에서 '연화반개'는 '연화만개蓮花滿開'보다 더 높이 쳐준다. '만개'는 이제 시들 일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반개'는 '만개'를 기약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오세암은 앞날이 유망한 자리로 꼽힌다. 김시습이나 오세동자, 만해선사를 뛰어넘는 또 다른 선각자가 예비된 자리다. 분명 만개의 날에 함께 찾아오실 분이다.

- 다음 주는 <설악산 오세암> 다섯 번 째 이야기 "사자바위 위의 법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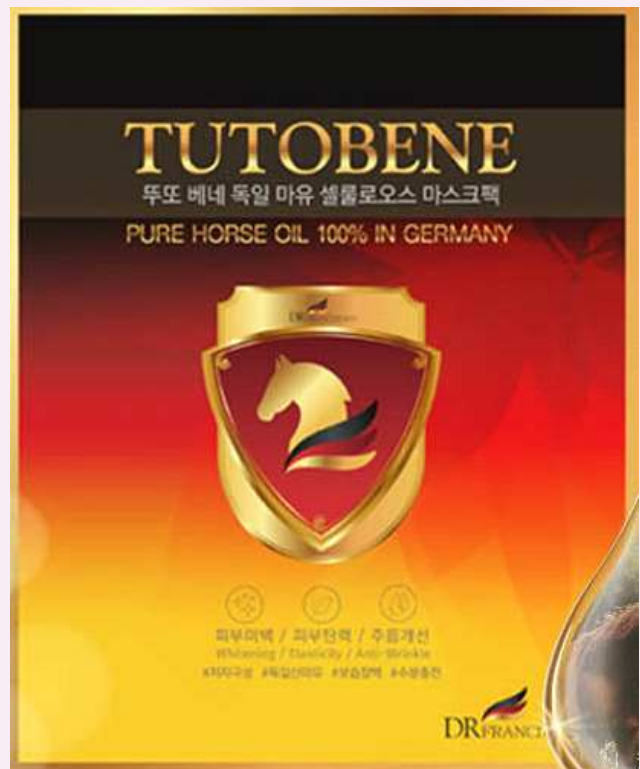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